

희소금속 국제워크숍 4월18일 개최

희소금속 국제워크숍이 송도에서 4월 18-19일 개최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월 18-1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웨라톤 호텔에서 제1회 희소금속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희소금속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초빙해 최신 연구·개발동향과 응용기술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등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소금속공동협의회(가칭) 설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희소금속 대응전략 수립과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단체로, 회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의 원활한 공급과 국제사회의 안전장치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2010년 1월 지식경제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송도국제도시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를 설립해 소재화 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국내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4/15>